

한국타이어, 부타디엔 폭락 “쾌재”

신한금융투자, 2/4분기 영업이익률 15.4% 예상 ... 수익성 개선 호재로

한국타이어가 수익성 개선 흐름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했다.

신한금융투자는 5월2일 한국타이어가 1/4분기에 분기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데 이어 2/4분기에도 이익흐름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.

최중혁 연구원은 “최근 원자재 가격 흐름은 타이어 생산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”이라며 한국타이어의 2/4분기 영업이익률이 15.4%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.

신한금융투자는 한국타이어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6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.

신영증권도 한국타이어가 2/4분기에 한층 더 개선된 수익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목표주가를 6만원으로 올려 제시했다.

이형실 연구원은 “최근 합성고무의 원료인 부타디엔(Butadiene) 가격이 하락하면서 추가적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”고 주장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5/02>